

COMPASS

July 2017

Colorful Daegu

www.daegucompass.com

ISSUE 76

**SAMSUNG
LIONS**

AN INTERVIEW WITH DARIN RU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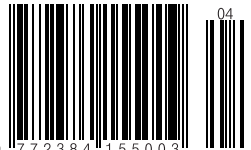
**JO CROISSANT
BREAD AND BEAN**

**12 SUMMER FESTIVALS
IN KOREA PART 1**

JULY

**FROM CANADA
TO SOUTH KOREA**

BECOMING A MOTHER ABROAD



9 772384 155003

ISSN 2384-1559



SAMSUNG LIONS

An Interview With Darin Ruf

Interview by Terry Faulkner
Photos courtesy of the Samsung Lions
Translated by Yujeong Lee
SPONSORED CONTENT



The Samsung Lion's new first baseman Darin Ruf is beginning to make waves in his first KBO season. In 56 games for the Lions, Ruf has posted a .296 batting average with 11 HR and 47 RBI despite having a rough start. He took some time recently to answer questions before hitting 2 singles and a double in the Lions victory against the fifth-ranked SK Wyverns. He spoke about his turnaround, the transition from MLB to the KBO, his future and more.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1루수, 다린 러프선수가 그의 첫번째 한 국프로야구 시즌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 러프선수는 어려웠던 출발에도 불구하고 신여섯 번의 경기에서 11홈런, 47타점, 평균타율 .296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최근 5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1루타 두 개, 2루타 한 개로 삼성의 승리를 거두기 전, 잠시 인터뷰를 할 시간을 내 주었다. 러프 선수와 함께 MLB에서 KBO로의 이적 및 변화, 그의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Darin, you had a bit of a rough start to the season but in your last five games, you've been hitting at .370 with a double last night and the homer against KT on the 14th. With a season average of near .300, you've turned around a bit. Where did that turning point occur? Was it the walk-off homer you hit against Doosan on May 2nd?

러프 선수, 시즌을 좀 어렵게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밤에 친 2루타 하나와 14일 KT를 상대로 친 홈런과 함께 지난 다섯 경기 동안 .370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평균타율이 거의 .300인데 원래대로 좀 돌아오고 있군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가요? 5월 2일 두산을 상대로 친 홈런이 부진과 이별하는 포인트였나요?

“...Yeah, that was the probably the swing that, gave me the most confidence I would say...but getting to settle in, the ten days that I got in the minor leagues, let me clear my head, kind of refocus on...that it's just a game, it should be fun and I put too much pressure on myself to make a good impression...to prove to the team that I was the guy that they thought I was. Having that ten days helped me refine some things but also take a break, mentally. And then to have that impact the very first game I came back, t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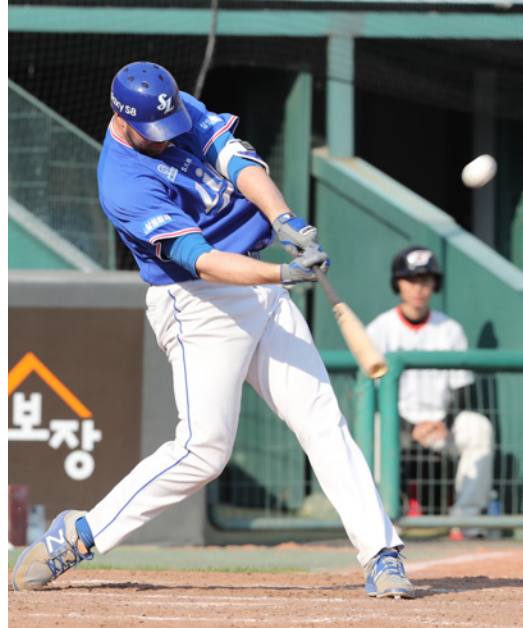
come out the next day and then get a couple hits and then get a couple more hits. [My] confidence just grew.”

“...네, 아마도 바로 그 스윙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신감을 줬다고 말하고 싶네요...하지만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마이너 리그에 있었던 열흘이 머리를 비워준 것입니다. 다시 집중을 하게 해 준 거죠.... 단지 경기일 뿐이에요, 경기는 즐거워야 하고요. 그러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줬어요...팀에게 제가 팀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마이너 리그에서의 열흘을 보낸 것은 몇몇 가지를 재정비하게 도와주기도 했지만 휴식을 취하게도 해 줬어요. 정신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첫번째 게임에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 돌아와서 다음 날에 경기에 나갔고 안타를 두 개를 치고 나서 두 개를 더 쳤어요. 제 자신감이 커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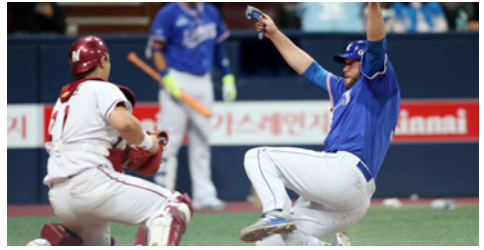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whirlwind that was going from the Phillies to the Dodgers and ending up here in Daegu with the Lions?

필리스에서 다저스로 그리고 이 곳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로 오기까지 벌어진 정신없는 일들을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It all happened really fast...it was Super Bowl Sunday and my agent contacted me...crazy game and then a crazy day for me...I was on the Dodgers team at the time when my agent told me ‘they were thinking of selling your contract’ two days before I was going to go to Arizona to report for Spring [training]...and then agreed to a contract while I was in Arizona. So then I had to fly back to Omaha the next day. We’d already shipped our cars, my wife and my son and I and then ship our cars back to Omaha. Then I was on a plane to Denver because I didn’t have a passport...I had to get a passport that day, fly to LA, fly to Seoul...and then Daegu to get a physical because we were on a time clock for the Dodgers to agree to sell my contract. I had to get my physical over here so it was a busy, busy week.”



-continued on p10-



“...모든 일이 정말 급하게 일어났어요...수퍼볼이 있는 일요일이었는데 제 에이전트가 연락을 했어요...대단한 경기였고 저한테도 대단한 날이었죠... 스프링 캠프[훈련]에 참여하려고 애리조나에 가기 이틀 전에 제 에이전트가 '구단에서 너를 이적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다저스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애리조나에 있는 동안 계약에 동의를 해서 그 다음 날 오마하로 다시 날아와야 했어요...우리는 이미 자동차를 보낸 상태였어요. 제 아내와 아들과 저는 오마하로 돌아오고 차도 다시 오마하로 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덴버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여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그 날 여권을 취득해야 했고, LA로 간 다음, 서울로, 그리고 대구로 가야 했어요...다저스가 제 이적에 동의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곳에서 제 피지컬 테스트를 받아야 해서 매우 바빴던 주였어요.”

What about this new environment and with new distractions, the fans and the noise in the stadium, how do you keep focused?

새로운 환경과 집중을 어렵게 하는 팬 및 경기장의 소음같은 새로운 요소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나요?

“The fans actually help you stay focused, as into every pitch as they are...Here, every pitch is so impactful on the game and the fans realize that...it makes you stay that much more focused.”

“사실 팬들은 집중력을 유지하게 해줘요. 그 분들이 매 피칭마다 집중하는 것만큼이나요. 여기에서는 매 피칭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팬들도 그 점을 알아요. 그런 점이 훨씬 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So it's actually easier to stay focused over here than back home?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집중하기가 더 쉽나요?

“Yes, definitely, unless I start singing the songs in my head...the game is a lot of fun over here...it's opened my eyes to a lot and I've enjoyed the whole thing.”

“네, 확실하요. 제 머릿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 않는 한은요...이 곳에서의 경기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많은 것에 눈을 뜨게 해 주었고 저는 모든 것을 즐기고 있어요.”

What about the likelihood of returning to MLB? As you know, Eric Thames became the first foreign player (while playing for the NC Dinos) to win the MVP for the KBO. He is now playing for the Brewers, could you see yourself someday coming back to be closer to home and family?

MLB로 돌아갈 가능성은요? 본인도 아시다시피, 에릭 테임스 선수가 (NC 다이노스에서 뛰는 동안) KBO에서 MVP를 수상한 첫번째 외국인 선수가 되었죠. 현재는 테임스 선수는 브루어스에서 뛰고 있는데요, 본인은 언젠가 집과 가족에게 더 가까운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If the opportunity presents itself sure but at this point in my career I think I will go wherever it makes sense for my family...and our future. The culture over here has really opened my eyes to the importance of being able to interact with all kinds of people. That would be important for my son to grow up in...and so far I've felt very

appreciated over here and that definitely helps coming to the field every day, to do the work and try to do the best for the organization.”

만약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당연하죠. 하지만 제 경력상 현재로 써는 제 가족과 저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화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 점은 제 아들이 자라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곳에서 매우 감사하고 있고 그런 점이 확실히 매일 필드에 오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 노력하도록 말이죠.

Darin is down-to-earth and sincere. In high school he received all state honors in both American football and baseball. He attended university at Creighton graduating with a business degree and an impressive 3.51 GPA. He has won numerous awards in the minor leagues and despite all of his successes, he remains humble and this quote says it best:

러프 선수는 현실적이고 진실하다. 고등학교 때는 미식축구와 야구 종목 모두 주대표로 선발이 되었다. 그리고 크레이튼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으며 경제학으로 학위를 받고 좋은 평점인 3.51점

으로 졸업했다. 마이너 리그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이러한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다. 다음 러프 선수의 말이 이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

“As an athlete I try to never root against another athlete; football, baseball, basketball, whatever sport...I certainly want others to do well. I don't want anyone to perform poorly because I know how hard I take it and I'm sure they put in just as much in as I do.”

“운동선수로써 다른 운동선수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을 절대 하지 않고자 했어요. 축구, 야구, 농구, 무슨 운동이건 간에 말이죠.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잘 하기를 바라요. 아무도 형편없이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지 알고 제가 하는 만큼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게 틀림없거든요.”

He certainly made a fan of this interviewer and I look forward to watching and supporting him and Lions in many more games in the future. SAMSUNG FIGHTING! 러프선수는 기자 본인을 확실히 팬으로 만들었다. 앞으로의 수많은 경기에서 러프선수와 삼성을 볼 수 있기를 고대하며 응원할 것이다. 삼성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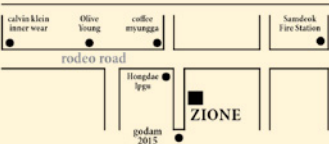
ZIONE



Wood fire Neapolian Pizza & Italian food



An Italian restaurant with healthy food, certified by Associazione Verace Pizza Napoletana



- Wed. ~ Mon. 12:00~22:00
- last order for lunch weekdays 15:00
- last order for dinner: 21:10 weekends 15:45

☎ 053.424.9122 / 72-1, Dongseong-ro 5-gil, Jung-gu, Deagu